

	<h1>보도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1. 25(월) / 총 2매(본문2)	
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	담당자	• 과장 김승범, 사무관 김준수, 주무관 김영조 • ☎ (044) 201-3968, 3986	
보도일시	2021년 1월 26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5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부전~마산 복선전철 사고 관련 정부조사단 확대운영

- 정부조사단, 부전~마산 복선전철 시공실태 종합 점검 착수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부전~마산 복선전철 민자사업* 지반침하 사고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정부조사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.

* 자금조달, 설계·공사·운영 등 모든 과정에 대해 민간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(BTL)

< 부전~마산 복선전철 노선도 >



○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원인 등 초기조사를 실시하고, 긴급 복구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.

- 해당 계획에 따라 24시간 3교대 작업 등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 국가철도공단 상주근무 등을 통해 복구 작업 과정에서 추가 침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.

* 연약지반개량 → 콘크리트 차수벽설치 → 터파기 및 가시설 → 개착 BOX 구조물 시공 → 신규 구조물 연결 → 되메우기

- 또한,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한국지반공학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정부조사단을 구성·운영하였다.
- 한국지반공학회는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으로 피난연락갱 굴착 중 ‘지하수 유출로 인한 터널 하부·측면 공동발생’을 사고 원인으로 분석하였다.
- 이와 관련하여,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예정된 사고현장 개착* 시 현장정밀조사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정부조사단을 현재의 2배 규모인 2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 - * 지반침하 사고 후 응급복구를 위해 토사를 되메우기한 상태로 차수벽 설치 후 터널 등 복구를 위한 토사 제거 시작
 - 정부조사단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국가철도공단, 국토안전관리원,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과 함께 터널, 구조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며, 필요 시 참여 전문가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.
- 정부조사단은 우선 그간 수집한 자료 분석을 시작으로 시공과정 적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‘부전~마산 복선전철 시공실태 종합 점검’을 2월까지 실시하고,
 - 3월부터 사고구간 개착이 시작되면 현장정밀조사 등을 시행하여 사고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.
- 정부조사단 조사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승범 철도투자개발과장은 “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조사단에 참여하게 되어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”한다면서,
 - “이와 동시에 개통지연이 최소화 되도록 복구 작업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민간사업시행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김준수 사무관(☎ 044-201-396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